

지역 매아리



고창서, 아동안전지킴이 최종 선발심사위원회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지난 9일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을 실시한 이후, 14일 오전 10시 30분, 2층 소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을 비롯하여 각 해당 지구대·파출소장, 경우회, 노인화부장, 부청문관 등 11명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선발을 위해 최종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올해 아동안전지킴이는 선발평가표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동등한 선발기회, 우수 인력 선발을 통해 사업의 합목적성과 공익적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2018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으며, 이번 면접에는 22명을 선발하는데 총 32명이 지원하여 1.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선발될 지킴이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발자 교육 실시 후, 초등학교 등·하루길, 통학로에 2인 1조로 배치돼 '18년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안성관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면접을 실시하면서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강조하였고,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이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하려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올해 총 2억 6100만 원을 확보해 곡물건조기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참여농가 5호 이상, 벼 재배면적 10ha이상인 마을영농회,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이며 1대당 1500만 원 기준으로 이중 60%가 보조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생산자조직(농업법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마을 안녕과 풍어 비나이다”

부안 위도 띠 뱃놀이 정월초사를 18일 열려

“마을 주민 편안하고 우리 부락 사고 없이 우리 배도 사고 없이 만선일세 만선일세 조기 실어 만선일세”

뱃사람들의 신명난 노랫가락으로 펼쳐지는 부안군 위도 대리(大里) 주민들이 18일 정월초사를 맞아 마을의 태평과 만선을 기원하며 울린 풍어제의 모습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로 위도 띠 뱃놀이 풍어제는 아침 8시부터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는데 마을 뒷산 꼭대기에 있는 당집에서의 당굿과 바닷가에서 용왕굿.

그리고 잔재배 처럼 꾸민 뱃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나가 띄워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월 초 사흘날인 18일 아침 선주와 농악대 등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오색선기를 들고 징 장구 팽과리 등을 울리며 무녀를 뒤따라 당 집으로 올랐다.

무녀가 재물을 워당 앞에 차려놓은 후 산신님 성주님 지신님 등 주문을 외우며 당산굿을 하면 마을 주민들이 소원을 비는 순서로 진행된다.

농악대가 산을 오르면서 풍물 가락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바닷가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주민들은 허수아비선원들 뒤편.



뱃사람들의 신명난 노랫가락으로 펼쳐지는 부안군 위도 대리(大里) 주민들이 18일 정월초사를 맞아 마을의 태평과 만선을 기원하며 울린 풍어제의 모습이다.

뒀. 그물, 뱃기 등을 두루 갖춘 길이 3m, 폭 3m정도의 뱃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굿의 공간이며 무녀의 굿에 농악대의 굿 장단과 노래 춤 그리고 술판이 어우러지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놀이 마당이었다.

마을 동쪽과 서쪽에서는 용왕을 위해 회식밥을 던지며 마을 입구 당산에는 풍어줄을 어깨에 메고 두 편으로 나누어 지신밧기를 한다.

수숫대와 짚 가마니를 이용해 만

들었던 뱃배에 밥과 떡, 고기, 과일 등 재물을 싣고 허수아비선원 10여 개와 마을기를 끌고 유자랑 낭장 망대 풍어와 용왕님 귀하라고 쓴 판자를 실어 칠산 앞바다로 멀리 띄어 보낸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재물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농악대와 함께 어우러져 바닷가를 방방 돌며서 용왕밥을 던지며 한바탕 신명나게 추는 춤으로 띠 뱃놀이는 막을 내렸다.

/부안=이옥수기자

전국 3대 뱃꽃축제로 거듭 '기대'

정읍 뱃꽃축제, 예술제 · 자생화 · 자생차 페스티벌 등과 연계

정읍 뱃꽃축제가 올해 전국 3대 뱃꽃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가 성공적인 뱃꽃축제 개최를 위해 새해 시작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뱃꽃한기 흠날리는 정읍 뱃꽃 눈짓'을 주제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기간에는 제22회 정읍예술제와 제14회 자생화 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4. 6~4. 10.)도 개최된다.

관련해 시는 연초부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담당 관계부서 타협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오는

27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체험·놀이 부스, 간식먹거리부스,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을 위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정읍뱃꽃축제'를 '전해 군향제', '여의도 뱃꽃축제'에 버금가는 전국 3대 뱃꽃축제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축제의 핵심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다.

먼저 축제 시작 전인 3월 31일부터 뱃꽃 야간 경관조명이 불을 밝힌다.

경관조명은 4월 15일까지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뱃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을 통해 정읍의

밤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따뜻하고 화려한 밤날을 걸으며 걸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정읍에서 정읍교에 이르는 1.2km를 걸기 좋은 거리로 지정해 차량을 전면통제(4.6. 13:00~23:00, 4.7.~8일 09:00~23:00)하고 그 안에서 버스킹과 버스쇼 등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특히 행사기간 제22회 정읍예술제와 제14회 자생화 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등 연계 개최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상수관로 매설 노후도로 정비 박차

10억원 투입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사업 착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군비 10억원을 투입하여 40여개 마을안길 등 상수관로 매설로 노후화된 도로를 대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와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상수관로 매설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마을안길 등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238개소를 완료했으며 올 1월 14개 읍·면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 사업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계획을 실시, 올해 상반기 공사완료 목표를 본

격적인 공사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일괄 정비를 시행할 수는 없으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꾸준한 예산확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와 보행환경을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사 추진에 있어 현장소장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한 견실시공은 물론, 조속한 사업 착수를 통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위한 다양한 지원 '훈훈한 설 명절 나기'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모두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게 1억5800여 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재원은 시 자체 사업비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봉사단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먼저 시는 9870여 만원을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중위소득 80%이하 1983가구를 지원했다. 시는 "쌀과 라면, 돼지고기 등의 생필품은 물론 현금 등을 전달해 저소득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77개 복지시설과 단체에도 6000여

만원의 지원했다. 시는 위문품을 전달해 위로 격려할 수 있는 훈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로 격려했다.

또 설 명절 기간에는 이와 별개로 정읍라이프스클럽과 (유)삼오, 동성아스콘 한전 정읍지사 등 기업과 단체도 개별적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설 명절 나기에 힘을 보탤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소외 되는 일 없이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한파 녹이는 훈훈한 나눔 이어져

매서운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고창군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훈훈한 온정 나눔이 이어지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고창군 성내면 소재 아이브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현정)은 지난 14일 고창군청 주민복지실을 방문하여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깨끗한 환경에서 아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브리 장현정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고창읍 소재 (유)파란건설(대표 한희춘)도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

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주)한빛원자력 본부 지역협력팀 사회공헌파트에서도 455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상하면사무소에 후원했다.

상하면은 이 생필품 세트를 면내 저소득 70세대에 전달했다.

박우정 군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나눔으로 따뜻한 고창군으로 거듭 나가고 있고 행정에서도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